

原電에 對한 信賴感 심어



張 鍾 鉉

(株)油公 石油事業企劃部 企劃課

첫 방문지인 울진 원자력발전소 9·10호기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차속에서 C군이 들려주는 원자력常識을 머리속에 되새기다 보니, 어느덧 건설현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관계자의 간단한 환영인사에 이어 우리 일행은 건설현장을 환눈에 眺望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다. 내손으로 에너토피아를 건설한다는使命感에서 였는지 공사현장에는 생기가 넘쳐 흐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조그만 부지위에 190만KW의 電力을 생산하는 民族의 大役事를 그들손으로 세우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자원의 貧國으로 기초 에너지를 거의 전량 外國 輸入에 依存하는 우리의 現實을 살펴보면, 原子力은 일단 건설하는데 많은 자본 기술 및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지 건설된 후에는 고효율, 무공해, 저렴한 연료비 외에도 관련 산업의 육성효과 및 핵연료의 국내생산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경제성장 및 國民生活의 向上에 중심기능을 담당할 大規模 公益事業을 우리손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다만, 原子力發電所의 核心部品인 원자로, 터빈발전기를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섭섭함이 남아있었으나, 자동차·철강·화학산업처럼 10~20년내에 原電技術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자신넘치는

표정속에 이런 아쉬움을 뒤로 접어둔 耑宿所로 향했다.

돌궂날은 원전 1, 2, 5, 6호기가 가동되어 가히 한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였다.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의 압축된 규모에서 3백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원자력의 위용을 실감하며, 발전소 入口에 아로새겨진 에너토피아의 꿈은 원자력발전의 歷史이며, 산 證人인 고리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소련 체르노빌원전 事故의 영향으로 원자력은 위험한 것이라는 先入見이 남아있던 나로서는 원자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방호벽, 컴퓨터를 통하여 자동으로 점검·제어되는 안전장치 외에도 한전의 자신있는 직업의식을 몸소 살펴보니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느끼게 해주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시찰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아쉬운 발걸음을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향하는 나의 머리 속에는 내가 서울에서 마음껏 使用하고 있는 전력의 상당부분이 國土 南端의 고리원전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해 보니 새삼 원자력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원자력이 없이는 전력공급 자체를 생각해 볼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또한, 1990년대 선진조국을 향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供給은 가정·상업용 및 수송용 연료공급은 석유류가, 전력공급은 원자력이 담당하는 자연스러운 役割분담으로 火力과 原子力은 경합연료가 아닌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산업시찰은 나에게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사하고 소중한 산업시찰이 되었으며, 원자력의 건설 및 가동을 담당하는 한전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유통의 꿈이 커가고 있음을 느껴본다.

끝으로 이같은 산업시찰기회를 제공해 주고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남긴다.